

도, 내년 녹색자금 지원 6곳 선정

복지시설 나눔금 5곳 · 무장애 나눔길 1곳 조성기로 장애인 등 보행 약자들 배려 정서안정 · 생활 개선

전북도가 한국복지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6개소가 선정되며,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는 '복지시설 나눔금 조성사업'에 정읍시 등 5개 시·군이 선정돼 8억 9,500만원을,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

업'에 부안군이 선정돼 4억 2,000만원의 녹색자금을 지원받는다. 18일 밝혔다.

'복지시설 나눔금'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숲과

원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읍시 나눔길, 남원시 효성의집, 완주군 성심나눔, 고창군 메디케어요양병원, 고창군 요엘원 등 5개소가 선정됐다.

'무장애 나눔길'은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하도록 숲길을 시설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줄포만경별 생태공원이 선정됐다.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녹색자금 292억 원을 지원받아 총 131개소

에 복지시설 나눔금 등을 조성했다.

올해도 복지시설 나눔금 5개소(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부안)와 무장애 나눔길 4개소(익산, 완주, 고창, 부안)를 조성하고 있다.

하천 도 환경복지국장은 "공모사업에 적격 대응해 올해 1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공모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숲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예탁금 40억원으로 증액'

도-전기안전공-기업은 '맞손'

도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전북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BK기업은행이 맞손을 잡았다.

도는 18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BK기업은행과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BK기업은행에 예탁금을 예치하면 BK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대출자금을 지원한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8년 12월 처음으로 협약을 맺은 이후, 이날 세 번째 재협약을 체결하며,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 30억원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의 예탁금이 조성됐다.

대출금리 자동감면율도 전년도 1.35%보다 0.42% 인상된 1.77%로 지원된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을 통해 운전 자금 대출을 받는 기업은, 기업별로 산정된 대출금리에서 1.77%를 자동 감면해 지원받고, 기업 신용등급, 거래기여도, 담보 등에 따라 최대 1.40%까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이며, 용자 기간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유호상 기자

완주 우리밀축산영농조합 등 도,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18일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완주군 우리밀축산영농조합과 익산 제 2·3단지 등 3개소이다.

조사지역은 악취관리지역내, 경계지역, 인근(피해)지역 등 3개 지역 27개 지점이며, 조사항목은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 13개 물질이다.

대기질 조사를 각각 2일 이상 새벽·주간·야간 시간대별로 나눠 더욱 세밀하게 조사해 발생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탄소중립 실현, 국가 명운 걸린 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탄소위에서 마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 NDC 상향 최종안 등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 "민노총 총파업 자제... 불법행위 엄정 처리"

"안선 접종자 대상 추가접종 계획 조속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날 앞으로 다가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불법행위는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김 총리로부터 "민주노총이 신하노조에 대해 파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파업의 실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을 향해 "지금 방위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김 총리에게는 "총파업이 실행될 때

는 대비해 급식, 돌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라"며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파업 자제를 위해 끝까지 노조를 설득할 것"이라며 "노조가 현명한 선택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는 최근 방역상황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었다.

김 총리는 "백신 접종 증가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다소 안정적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11월 일상 회복을 위한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안선 백신의 효과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며 "국민께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안

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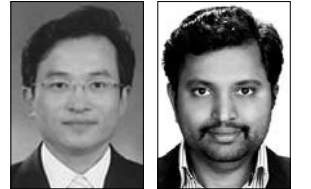
한편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콘텐츠 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김 총리는 "지금은 콘텐츠 산업의 도약을 위해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플랫폼과 콘텐츠 업체의 동반성장, 국내 자금을 활용한 제작 지원 확대, 경쟁력 있는 창작 여건 조성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

미래에너지 저장 장치용 촉매 개발

전북대 유동진 교수팀



유동진 교수

신무간 박사

전북대학교 유동진 교수팀(생명과학과)은 에너지저장장치 응용연구를 위한 고성능 및 고내구성을 갖는 전극촉매의 연이은 개발로 세계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원 에너지저장·변환공학과(BK21 FOUR) 라미라피산 신무간 박사 등에 의해 수행된 이번 연구는 전기촉매연구 분야에서 세계상위 1% 학술지에 해당하는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의 온라인 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오프라인에는 2022년 1월 실렸다.

이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물분해와 금속-공기전지를 위한 효과적인 전기촉매로 다공성탄소 나노시트를 갖는 코어-셸 금속산화물을 개발, 이 결과물을 활용한 물분해 장치의 효과적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며, 아연-공기전지는 높은 에너지효율과 우수한 장기구동 안정성으로 인해 재충전이 가능한 에너지저장기술에서 유망한 차세대전지 장치 중의 하나로 입증됐다.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유동진 교

수는 "이번 연구는 에너지저장 및 변환 응용 그 중에서 특히 금속-공기전지, 연료전지, 물분해장치를 위한 고내구성과 높은 활성을 갖는 새로운 비귀금속 전극촉매 개발이라는 전기촉매 소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글로벌 이슈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동진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KETEP)의 연료전지시스템 전주기R&D 고급트랙사업을 수행, 현재 교육부(BK21 FOUR)의 수소에너지 융복합기술 혁신인재사업, 한국연구재단(NRF)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KETEP)의 차세대전지 소재부품 응용기술 혁신연구센터 1단계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제고 총력

대책회의 열고 원인 분석

전북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나섰다.

도는 코로나19와 고질채납 등의 이유로 징수율이 저조한 시군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고질채납자 특별 관리를 당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도내 20만여 대의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지난 3월(2020년도 하반기) 14만 대 61억원, 9월(2021년도 상반기) 12만 대 48억원 등 총 2회에 걸쳐 총 109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부과한 부담금의 73.9%가 징수됐으며,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부담금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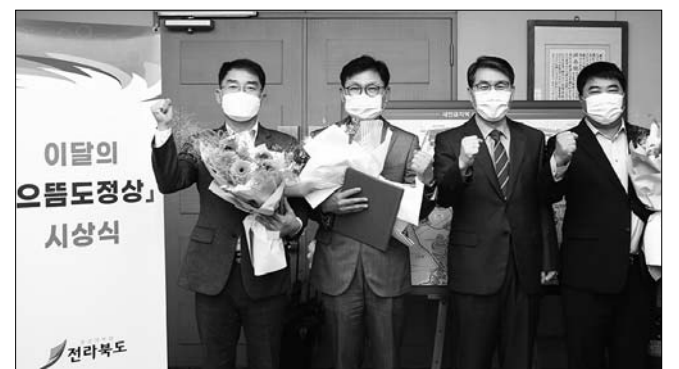
도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징수율을 제고를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체납 사유, 징수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징수율 제고 시·군 현장을 방문해 독촉고지서 발송, 자진 납부 유도 등 시·군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 및 고질채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당부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무재산,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채납자와 차액이 경과해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과감한 결산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연말까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의 소통과 협업을 지속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이달의 으뜸도정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조봉업 행정부지사.

전북도, 9월을 빛낸 우수부서 선정

'최우수' 수산정책과, '우수' 자연재난과·도로교통과

전북도가 9월 업무성과가 탁월한 수산정책과, 자연재난과, 도로교통과 3개 부서에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시상,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우수부서에는 수산정책과, 우수부서에 자연재난과, 도로교통과가 선정됐다. 특히, 수산정책과는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과 향후 노을대교와 연계한 관광상품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

수산정책과는 또 전북도 최초로 품소 천일염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게 적극 행정을 구현했다.

이에 도는 품소 천일염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과 향후 노을대교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소금 브랜드

개발, 경영 안정화, 후계역력 확보 등으로 염전 주변을 관광명소로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자연재난과는 '홍수해생물권 종합장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민의 안전 생활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자연재난과는 이번 공모로 488억 원의 국비를 확보, 방재시설간 연계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 재해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도모 및 농경지 구상 내수배제 불량,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등 재해 위험 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과는 '노을대교' 사업추진으로 향후 도내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향상, 안정성 향상 등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유호상 기자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첨단 놀이시설이?

전북도-전자기술연구원, 협약 체결

실감 체험기구 장비 구축 · 기술 지속 협력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신체신호를 기반으로 근력, 민첩성, 유연성, 균형감 등 발달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첨단 놀이시설이 들어선다.

도는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영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어린이 놀이시설' 기술협조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전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지난 2019년부터 2년여에 걸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과 국비 28억 원을 투입해 공동 연

구해 개발한 '생체신호 기반 인터랙티브 플랫폼' 기술이 도입된 첨단 어린이 놀이시설을 체험관 2층에 설치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ICT 신기술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협력 체계구축도 다져 나가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어린이창의체험관에 설치한 첨단 어린이 놀이시설 체험기구의 시범 서비스 운영을 통해 인터랙티브 플랫폼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연계협력, 실감 체험기구 4종 시범 서비스 운영 협력,

시범 서비스 사용자 체험 기반 데이터 수집 지원 협력 등이다.

이번에 설치한 첨단 어린이 놀이시설은 '두근두근 체력측정소'라는 이름으로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두근두근 체력측정소'는 아이들의 근력, 민첩성, 유연성, 균형감 등을 알아보는 놀이시설로 재개관 시 체 협회 불 수 있다.

체협을 위해서는 놀이시설 프로그램에 나이와 성별을 입력하고 인바디를 측정 후, 손목에 센서를 착용하고 4가지 놀이시설을 순서대로 통과하면,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의 자료와 비교해 신체발달정도를 알 수 있다. 체험시간은 대략 5분 정도 소요되며, 인바디 결과와 체험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바깥

놀이 등이 어려운 시기에 어린이들이 창의체험관의 첨단 놀이시설을 통해 신체·기능 등 발달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새로운 기술의 현장 적용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자 꿈나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에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신규 콘텐츠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전자기술연구원장은 "첨단 놀이시설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재미와 즐거움을 주고, 이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발달 정보를 제공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연구원이 개발한 첨단 인터랙션 기술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메타버스, AR, VR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